

논술고사 문제지

수험번호		성명	
------	--	----	--

(가)의 관점에서 (나)를 비판하고, (가)와 (나)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평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50자)

※ 주의사항

1. 답안지에 제목을 달지 말 것.
2.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3. 제시문의 어휘는 쓸 수 있으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는 말 것.
4.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요구한 분량에 맞추어 쓸 것.

(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이 보장받는 평등은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회의 평등'일 뿐이다. 시민들은 누구나 스스로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하지만 균면성이나 성실성 및 숙련도의 차이에 따라 빛어지는 결과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격차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자격을 똑같이 부여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인별 성적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물론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어떤 이들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높은 세율, 특히 정당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나)

서울시교육청이 남자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해 논란이 뜨겁다. 제도 추진은 초·중등 교사 중 여교사 수가 남교사 수보다 훨씬 많아 교육의 불균형과 교육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하자는 게 취지다.

갈수록 심화되는 교사 여초(女超) 현상에 대한 우려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교사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의 성 역할 형성과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기도 해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사다.

시교육청은 일반 공무원처럼 초·중등 교사에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교사 임용이 미흡하면 일정 합격선 안에서 추가 합격시켜 성비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도 타당성이 없고 논란만 일으킬 뿐이라며 도입을 거부했다. 이미 교대 신입생 선발에서 남학생을 일정 비율로 할당하고 있어 이중혜택이며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다.

특정 영역에서 소수자인 남성을 배려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전적으로 위배하는 것일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남교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다면 문제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인성교육과 성장을 위해서는 남교사가 필요하다. 학생이 남교사에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면 교육 당국은 여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2011학년도 수시모집(수시1차)

- 출제 기본방향 -

현재 우리 사회는 교육, 문화, 경제,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평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술시험은 첫째, 학생들이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얼마나 적절히 비판할 수 있는가 하는 독해력과 비판 능력을 측정하며, 둘째, 주어진 제시문을 근거로 하여 바람직한 평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논리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

<출제 의도>

우리 사회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한다. 그러나 사회의 계층 분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 분화는 우리 사회의 주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과의 평등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여 균형 있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결과의 평등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능력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문제에서는 평등이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평등의 기본 개념을 통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기회의 평등으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 결과의 평등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 등을 어떻게 극복하여 바람직한 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으로, 누구나 최선을 다해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불평등이나 개인별 성적 차이 등에서 기회의 평등이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의 균면성, 성실성, 숙련도 등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 (나)에서 제시한 사례는, 초·중등 교육 현장의 교사 성비 불균형에 관한 문제를 남자교사 할당제라는 '결과의 평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를 적절히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방안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에게는 남성 및 여성 교사에게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 해설>

(가)의 근거를 적절히 활용하여 (나)를 비판하고, (가)와 (나)의 견해를 중심으로 평등의 이념을 현실 속에서 조화롭게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핵심 어휘를 사용하여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가)에서는 평등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에서는 기회의 평등으로 발생한 불균형을 결과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기회의 평등'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견해로 개인의 노력과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나)에서 주장하는 결과의 평등을 비판할 수 있다. (가)와는 달리 (나)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가져오는 사회적 불균형을 적절히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며, 공익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기회의 평등을 다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와 (나)의 견해는 평등의 개념이 단순한 생각과 논리만으로 정의 내릴 수 없고, 대상과 목적, 계층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복잡한 계층과 다양한 현상을 반영하되, 평등이 갖고 있는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평등 사회를 제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시문의 주장과 근거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평등의 의미와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리정연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모 범 답 안 -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인격, 가치 등에서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차별이 없다'는 것은 각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결과를 고르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남자 교사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교사 지망생에게 기회가 불평등하게 제공되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교사 여초 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자교사 할당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사의 자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회의 평등은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난 다양한 불균형 상태를 통해서도 그 한계를 잘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불균형, 지역적 불균형, 경제적 불균형과 그로 인한 문화 및 정보의 격차 등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측면에서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기회의 평등은 허울일 뿐 기회 자체가 평등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불균형은 빈곤층의 증가와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적 평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불균형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은 가장 중요한 자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로 인한 차별적 결과가 개인에게도 전하고 노력하게 하는 긍정적 자극이 되어 나아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의 평등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